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4월 5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농업용 무정전 장치 첫 실증-5면 (24.3.2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신문
○	갑작스런 정전에도 안정적 영농 지원 최선-5면(24.3.27.)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신문
○	젓은 비... 제주지역 생산액 악영향 확인 -10면(24.4.3.)	-	제주매일
○	올 3월 상순 평년보다 추웠다가 중순 기온 오르며 하순 포근-5면(24.4.4.)	-	제주일보
○	1억 6천마리 달하는 꿀벌 겨울동안 죽거나 사라졌다-3면(24.4.5.)	-	뉴제주일보

(서귀포신문: 2024년 3월 27일)

○ 농업용 무정전 장치 첫 실증-5면

농업용 무정전 장치 첫 실증

폐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전력공급 장치 기술 연구
서귀포 토평 천혜향 농가
첫 기술 보급...결과 주목

폐차한 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농업용 무정전 전력공급 장치'로 구축하기 위한 첫 기술 실증 작업이 서귀포시에서 진행,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제주도와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이하 서귀포농기센터) 등에 따르면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 서귀포농기센터, 민간업체 2곳 등은 협력을 통해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농업용 에너지 저장장치(ECO ESS) 개발을 서귀포 토평동 천혜향 농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발사업은 태풍과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 피해 상황에서 전력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서귀포농기센터가 개발을 제안해 이뤄졌다.

지난해 4월 도와 제주테크노파크, 업체 등과의 개발 방향 협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협업을 이어오며 시제품을 개발하고 2차례에 걸친 시연회를 열었다.

이 저장장치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셀 10개를 하나로 조합해 만든 10.9kWh 용량의 착탈식 배터리 6세트와 충·방전 제어 컨버터, 3상 인버터 장치에 소형 소화기를 장착하고 2중함에 조립했다. 상시전원과 비상시 배터리 투입에 따라 신호를 감지해 개폐 동작을 수행하는 등 환풍기(0.5kWh 규격) 5대를 3~4시간 구동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작동 도중 추가 보유한 착탈식 배터리를 교체하면 작동 시간 연장도 가능하다.

시연회에서는 환풍기 작동 중 전기 차단기를 내렸을 때도 환풍기가 멈춤 없이 작동, 사실상 정전 상황에서도 무정전 상태를 유지했다.

더구나 충전된 전기 에너지는 평상시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어 제주 '탄소 없는 섬 2030(Carbon Free Island 2030)'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탄소중립 기반 마련으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사용으로 농업분야 인



지난 14일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사진 오른쪽 맨앞)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만들어 자가 발전기로 활용 중인 서귀포시 토평동 시범 사업 농가를 방문해 김창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사진 왼쪽)에게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위). 나머지는 저장장치 모습.

프라 구축 등 새로운 비전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시설하우스 재배 농업인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정전 상황이다. 낙뢰나 태풍 등 예기치 못 한 정전이 발생하면 하우스 내부 온도에 따라 비닐을 자동으로 열고 닫는 자동개폐기와 온(열)풍기, 환풍기 등의 멈춤 현상으로 작물의 저온(냉해)이나 고온 피해 발생으로 작물이 죽거나 세력 회복에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비상발전기는 비상 전기 공급까지 1분 내외의 시간이 걸리고 스마트팜은 프로그램 재부팅(재시동)까지 공백 시간이 발생한다. 비상발전기 1대 설치에 10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고 비교적 넓은 공간도 필요한 현실이다.

앞으로 제주도 등은 이달에 내

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신청했으며, 내달 실증농가 운영 교육에 이어 6월 실시간 배터리·인버터 데이터 및 고장감지 모니터링을 거쳐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인한 후 2025년 행정지원 사업으로 확대, 보급을 재안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대당 2000만원 수준인 설치 비용도 일반화를 거쳐 대당 500~600만원 수준으로 낮춰 사업 보조 등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 방침이다.

실증에 참여한 농가는 "이번 농업용 무정전 전력장치는 태풍 내습시 환풍기를 작동한 후 다시 비상발전기를 함께 작동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디젤발전기보다 소음이 매우 작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다"라고 기대했다.

3.27.

서귀포신문5

(서귀포신문: 2024년 3월 27일)

○ 갑작스런 정전에도 안정적 영농 지원 최선-5면

“갑작스런 정전에도 안정적 영농 지원 최선”

김창윤 서귀포농기센터 소장
무정전 장치 보급 일반화도

폐차한 전기차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활용한 농업용 에너지 저장장치(ECO ESS)에 대한 실증실험이 토평동 천혜향 농가에서 진행되는데 이번 연구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안으로 이뤄졌다.

26일 서귀포신문이 만난 김창윤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장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농업에 적용하는 첫 사례로 내년 6월까지 관내 10곳에서 실증할 예정”이라며 “실증사업장에서 얻은 데이터는 관계기관과 면밀히 분석해 농업 현장에 확대 보급, 갑작스러운 정전에도



김창윤 서귀포농기센터 소장

걱정없이 안정적인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귀포 지역의 감귤은 자타공인 제1의 주산작물이고 그 중에서 하우스 온주밀감을 비롯해 한라봉과 천혜향 등 대부분의 만감류는 하우스 재배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소장은 “하우스 농가의 예기치 못한 정전 피해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한낮에 정전됐을 때 신속하게 조치하지 못하면 하우스 내부 온도가 50도를 넘어가 농작물이 죽거나 죽지 않더라도 세력 회복에 수년이 경과된다”라며 “보통의 비상발전기는 단전 10여 초 후 비상전기가 공급되는데 무정전 장치는 정전과 동시에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피력했다.

또 김 소장은 “저장된 전기는 평상시 일반 전기로 사용, 기존 발전기에 비해 사용 범위가 넓어 관련 부서와 함께 무정전 장치를 저렴하게 보급하는 방안 3.27.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귀포신문 5

(제주매일: 2024년 4월 03일)

○ 잦은 비... 제주지역 생산액 악영향 확인-10면

잦은 비...제주지역 생산액 악영향 확인

제주연구원 분석 결과 연 강수량 100mm 늘면 0.3% 감소
주력산업 전 분야 피해...식품·의약품 제조업 육성 등 제언

올해 들어 제주도에 유달리 비날씨가 잦은 가운데 연 강수량 100mm 증가 시 제주지역 생산액이 0.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기반산업부는 2일 JRI정책이슈브리프(395호) '기후변화가 제주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시사점'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0년(1973~2022년)간 제주지역 평균기온은 1.5℃(10년당 +0.3℃), 연 강수량은 99.0mm(10년당 +19.84mm) 상승했다. 그 결과, 농업 분야는 제주매일 10년간 증가와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 증가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경쟁 주산지의 작물 재배면적 확대, 아열대성 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 극한기상 발생 빈도 증가로 농업재해 발생 빈도 또한 증가 등 부정적인 결과도 있었다.

어업 분야에선 바다 수온 상승으로 제주 연안 주요 어종이 북상하고 아열대성 어종 출현 비중이 높아졌다. 여름철 고수온은 어류 폐사를 불러왔다.

관광서비스 분야에서도 바다나 산 등 자연자원에 의지하는 관광산업이 취약성을 드러냈다. 제주지역에선 해수면 상

승 때문에 해안 관광지인 용머리해안 입장 제한이 늘고 있다. 극한기상 발생으로 항공기와 여객선이 결항되면서 관광객 이동제한 사례가 나타났다.

공사장에서는 여름철 장시간 야외작업 시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 발생 우려가 커졌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평균기온 1℃ 증가 시 제주지역 전산업 생산액이 3.1% 감소하고, 강수량 100mm 증가 시에는 0.3%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피해 규모는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제조업 순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각 산업 분야별로 대응책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 진전에 따른 적극적 지역산업전략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조문호 기자

(제주일보: 2024년 4월 04일)

○ 올 3월 상순 평년보다 추웠다가 중순 기온 오르며 하순 포근-5면

올 3월 상순 평년보다 추웠다가 중순 기온 오르며 하순 포근

제주지방기상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3월 제주도 기후특성'을 보면 제주지역은 3월 상순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했지만 중순부터 서서히 기온이 오르면서 3월 하순에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다.

3월 상순에는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가는 찬 기압골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평균 기온이 7.6도로 평년보다 1도 낮았다.

하지만 3월 중순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3월 하순에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5도 높은 13.4도를 기록했다. 제주일보 5

특히 3월 30일에는 제주시 낮 최고기온이 26.7도까지 치솟으면서 기상관측 이래 3월 일 최고기온 중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3월 제주지역 강수량은 116mm로 평년과 비슷했으며, 강수일수는 10.8일로 평년보다 0.4일 많았다.

황사일수는 3일로 평년(1.8일)보다 많았다.

이는 3월 17~19일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저기압을 따라 모래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제주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됐기 때문이다. 김두영 기자

(뉴제주일보: 2024년 4월 05일)

○ 1억 6천마리 달하는 꿀벌 겨울동안 죽거나 사라졌다-3면

1억 6천마리 달하는 꿀벌 겨울동안 죽거나 사라졌다

118농가서 7981군 폐사·실종...농가별 피해 최대 280군 달해

이른 바 집단 실종된 꿀벌이 1억마리를 훌쩍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2~2023년 겨울 벌류 사육 농장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관내 양봉농가 189곳 중 118농가에서 꿀벌이 대규모로 실종 또는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양봉농가들의 꿀벌 피해 규모는 총 7981군으로 집계됐다.

보통 벌통 1군에 꿀벌 2만마리 정도가 군집하는 만큼 산술적으로 대략 1억 6000마리에 육박하는 꿀벌이 집단으로 죽거나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오라동 한 농가는 280군(토봉 30·양봉 250)이 폐사했고 오라2동 농가는 280군(양봉)이 실종돼 꿀벌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구좌읍 행원리 농가

군(양봉), 조천읍 신촌리 농가 210군(양봉), 조천읍 북촌리 농가 및 애월읍 광령리 농가 각 200군(양봉), 조천읍 선흘리 농가 198군(양봉)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농가들이 꿀벌을 사육한 지역별로 조천읍에서 피해가 41건(이하 일부 농가 복수지역 사육)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애월읍이 25건, 한경면이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좌읍 8건과 한림읍 4건 등 피해가 발생했고 동지역 피해는 31건으로 집계됐다.

집단 실종 피해가 큰 농가는 키우던 꿀벌의 절반가량이 실종·폐사돼 버렸다.

조사 당시 양봉 농가들이 사육 중인 꿀벌은 총 2만9656군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4.5. 240군(양봉)과 조천읍 선흘리 농가 220
뉴제주일보 3